

- ①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만노이케에 용의 신이 살았습니다. 용은 해가 좋은 날에는 뱀으로 둔갑해서 저수지 둔치에서 햇빛을 쬐고는 했습니다.
- ② 하루는 언제나처럼 뱀으로 둔갑해서 별을 쬐고 있는데 솔개 한 마리가 날아 왔습니다. 솔개는 뱀을 보자 “그놈 참 맛있게 생겼구나”하면서 뱀을 낚아채 갔습니다.
- ③ 솔개는 낚아 채 뱀을 자기가 살고 있는 동굴로 데려 갔습니다. “이놈은 나중에 천천히 먹어야겠다. 그럼 슬슬 미야코에나 가 볼까” 솔개는 이렇게 말하고는 용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어 놓았습니다. 알고 보니 솔개는 텐구가 둔갑한 것이었습니다.
- ④ “용으로 변하면 텐구 녀석을 혼내줄 수 있을 텐데.” 하지만 물이 없으면 용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“이런 동굴 속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지”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텐구가 이번에는 미야코에서 스님을 잡아왔습니다. 스님을 가만히 보니 물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. 손을 씻으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물병을 든 채로 텐구에게 잡혀 온 것입니다.
- ⑤ “스님, 부탁이 있습니다. 저는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만노이케의 용신입니다. 그 물만 있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텐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. 제발 그 물을 제 몸에 뿌려 주십시오” 용신인 뱀은 스님께 부탁했습니다.
- ⑥ 스님은 무서웠지만 뱀에게 물을 뿌려 줬습니다. 그러자 뱀은 순식간에 용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. 깜짝 놀란 스님에게 용이 말했습니다. “스님, 제 등에 타십시오. 절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” 용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스님을 절에 데려다 주었습니다. “그럼 저는 텐구 녀석을 혼내주러 가겠습니다. 소문을 듣자하니 미야코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”
- ⑦ 용신은 하늘 위에서 텐구를 찾았습니다. “저기 있구나” 텐구는 이번에는 파계승이 되어서 싸움과 도둑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. “텐구 녀석, 제 아무리 변신을 해 봤자 내 눈을 속일 순 없지!” 용신은 텐구를 덮쳤습니다. 그 후 텐구가 어찌 되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하지만, 텐구가 사라진 후 미야코는 평화를 되찾았고, 사누키 평야는 언제나 풍년이었다고 합니다.